

“당신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광주 소방관 4명 ‘전남대병원 인명구조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로 환자 2명 살려

지난달 3일 새벽 2시20분께 광주 북부소방서 두암 119 안전센터에 긴급 출동령이 떨어졌다. 40대 남성이 짐을 차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암 119 안전센터 정구·김수연 소방사는 숨이 멎어가는 최모(45·광주시 북구 두암동)씨의 기도 확보 등 응급 조치를 한 뒤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했다.

응급환자의 경우 ‘총각’을 다루기 때문에 정 소방사 등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환자 의 기도 확보와 산소 투여를 하는 등 최씨에

게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자칫 방심하면 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최씨의 숨소리는 더욱 약해졌고, 악하게나마 뛰던 심장도 멈춰섰다.

위급함을 느낀 정 소방사 등은 흉부압박·인공호흡 등으로 최씨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이때에는 땀이 어울렸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이러기 5분여, 최씨의 심장은 미동을 보였고, 전대병원에 도착한 최씨는 곧바로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전남대 병원은 두 소방사의 공로를 인정,

지난 13일 이들에게 ‘2007년 인명구조상’(Life Saver Award)을 수여했다.

정 소방사는 “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모든 소방관들이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더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지난 5월 운동하다가 쓰러진 신모(여·36·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를 구급·구조해 전남대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긴 ▲김남열(남부소방서 봉산 119안전센터) 소방장 ▲정래수(동부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사도 이 상을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소방장은 “훌륭한 다른 대원들이 많은 데 운 좋게 큰 상을 받게 됐다”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생명을 구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명구조상’은 지난 2005년 11월 한내과 원장의 심장이 멈춰 119가 출동했고, 병원까지 후송하는 과정에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 및 저체온 유도 등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김수연 소방사〉 〈정구 소방사〉



〈김남열 소방장〉 〈정래수 소방사〉

한 덕분에 소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전대병원은 같은 해 12월 이 의사를 살려낸 광주 남부소방서 김현호·박상운 소방에게 첫상을 수여했다. 지난해에는 조삼영(광산소방서 하남파출소) 소방사·김희환(동부소방서 서산파출소) 소방사·설병우(보성소방서 도양파출소) 소방사·이대명(영광소방서) 소방사 등 4명이 영광을 안았다.

/인천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지검 국민참여 모의재판



16개 민·관 단체 대표들이 14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저출산·양육 후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방검찰청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앞두고 오는 17일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실시한다.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모의재판은 ‘구청장이 장례업자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 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가상의 공소내용을 토대로 진행된다.

행정은 뇌물이 없는 상태에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유·무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모의재판에는 임정근·김동희 검사가 공판검사로, 공판부 권영빈 검사가

가 재판장으로, 박도하, 최의석 변호사가 변호인 역할을 각각 맡아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증인은 검찰·변호인 층 각각 3명씩이다. 피고인과 증인은 국단 ‘포커스 시티’ 단원 7명이 맡는다. 재판은 오전 배심원 선정에 이어 오후 ▲모두 진술 ▲증거조사 ▲최종변론 ▲평의 ▲판결 등의 순으로 6시간여 동안 진행된다.

광주지검 이승한 공판부장은 “새로운 재판방식 도입을 앞두고 원활한 진행과 시민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족

▲추영조(전 순천지방철도청)

씨 장남 허근(순천고 교사)군 유준조(광주유도회 부회장·전 전남고 교사)씨 막내 청하(순천고 교사)양=16일(일) 낮 12시 순천시 동부웨딩문화원 2층 동부실.

▲천도길(신일건축사 사무소

대표)씨 장남 승환군 이우성씨 차녀 호진양=16일(일) 오후 1시 20분 유토피아웨딩홀 1층 다이아 몬드홀.

부음

▲신육현씨 별세 상철(아일특수강 고문)·명철씨 부친상 이기원·김성영(전남고 교장)·김윤택(남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씨 빙부상=발인 15일(토) 금호장례식장 401호. 227-4000

광주시 등 16개단체 협약체결

광주시의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약이 체결됐다.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학계, 의약계, 종교계, 여성계, 사회복지계, 시민단체, 교육계, 경제계, 보육시설연합회 등 16개 단체의장들로 구성된 ‘광주시 저출산·양육 후원협의회’는 14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사회협약체결식’을 갖고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한 환경조성을 위해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확대,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출산과 양육이 기쁨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건강한 출산·양육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각 직능 단체는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 실천하면서 이행 정도를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수능 등급제 무효”

수험생 첫 소송 제기

올해 첫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별 성적 등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수험생의 첫 소송이 제기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신모씨는 등급제 평가 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무효·취소되어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분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은 물론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 위임 규정이 없고 단지 ‘배점’만 규정돼 있으나 ‘배점’이 수능 등급제와 연관돼 ‘등급’이라는 것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수능 등급제는 법령에 위임되지 않았고 법령에 위임도 없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만에 의한’ 제도일 뿐이며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등급제는 실제로는 다른 점수를 같게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극복 민·관 ‘손 잡았다’

한 환경조성을 위해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확대,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출산과 양육이 기쁨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건강한 출산·양육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각 직능 단체는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 실천하면서 이행 정도를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초·중·고 과학수업 쉽고 재미있게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 내실화 계획

교사 재교육·실험실 개선 등

내년부터 5년간 3,400억 투입

과학에 대한 초·중·고교생들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실험과 연계한 수업이 늘어나고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지도 연수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5년간 3천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학수업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20~30% 수준이었던 과학수업의 실험평가 비중을 2012년까지 50%로 늘릴 방침이다.

중·고교에는 방과후나 방학기간에 우수학생 심화 과학반’을 설치해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교과와 상위 10%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과학수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개한 ‘학업성취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이 과학부문에서 지난해 11위로 추락한 바 있다.

/연합뉴스

PC 동영상 파일 숨긴 뒤 돈 빼가

악성파일 ‘랜섬웨어’ 조심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PC에 설치된 파일을 숨겨버린 뒤 프로그램 이용료를 쟁기는 악성코드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안철수연구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PC 사용자의 동영상 파일을 감춘 뒤 이를 보게 해준다며 결제를 유도하는 ‘랜섬웨어’가 출현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랜섬웨어는 최근 동영상 플레이어 사용자를 속여 설치돼 물의를 빚고 있는 애드웨어 ‘uccplay’에 포함된 것으로, 설치된 PC 내에 있는 모든 동영상 파일을 숨겨진 폴더에 복사한 뒤 원본을 삭제한다.

이번에 발견된 랜섬웨어는 최근 동영상 플레이어 사용자를 속여 설치돼 물의를 빚고 있는 애드웨어 ‘uccplay’에 포함된 것으로, 설치된 PC 내에 있는 모든 동영상 파일을 숨겨진 폴더에 복사한 뒤 원본을 삭제한다.

사용자들이 숨겨진 폴더 내의 자신이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 랜섬웨어를 실행시키면 “본인 인증하기”라는 알림창이 뜨지만, 이를 클릭하면 본인 인증을 가장한 험대전화 걸레창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이 본인 인증을 하는 줄 알고 랜섬웨어에 돈을 지급하고 자신의 파일을 열어보는 피해를 입고 있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액티브X 경고창이 떴을 때 꿈틀거리 내용을 살피는 것은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 설정을 반드시 ‘보통’ 이상으로 설정해 자동 설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원(남·48), 최영아(여·3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재능방송·한국경제TV·부동산TV 출연 강사진!

개강 1월 2일 (주, 야) 기존서 이론 2개월 완성

현재 강의중 (매일 무료 청강 환영) 국비무료 현재 접수종 529-8111

전국 최대 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세대교체자분들로 추천한 1동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서구점 ☎ 361-8111 ● 북구점 ☎ 529-8111

▶ 능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비로옆 도입빌딩

북구점 ☎ 529-8111

▶ 계룡동 구사당거리(종종동) 대입일보 옆 청송빌딩 6층

▶ 대전 유성구 대전시청 앞 대전은행 옆 대전빌딩 10층

▶ 대전 유성구 대전시청 앞 대전은행 옆 대전빌딩 10층

▶ 대전 유성구 대전시청 앞 대전은행 옆 대전빌딩 10층

▶ 대전 유성구 대전시청 앞 대전은행 옆 대전빌딩 10층

▶ 대전 유성구 대전시청 앞 대전은행 옆 대전빌딩 10층

▶ 대전 유성구 대전시청 앞 대전은행 옆 대전빌딩 10층

▶ 대전 유성구 대전시청 앞 대전은행 옆 대전빌딩 10층

▶ 대전 유성구 대전시청 앞 대전은행 옆 대전빌딩 10층

▶ 대전 유성구 대전시청 앞 대전은행 옆 대전빌딩 10층

▶ 대전 유성구 대전시